

#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 칩사이드를 중심으로

이 미 영

백석대학교

## 1. 칩사이드

미들턴(Thomas Middleton)이 쓴 마지막 도시희극이자 도시희극 최고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A Chaste Maid in Cheapside*, 1613 초연)는 극 중 모든 장면이 칩사이드 한 장소에서 벌어진다.<sup>1</sup> 도시희극 장르 자체가 동시대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지역 하나가 극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경우는 흔치않은 일이다. 게다가 이 극이 초연된 1613년에는 이미 칩사이드가 예전의 전성기를 뒤로 한 채 쇠락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이 시기에 칩사이드를 도시희극의 중심으로 소환한 데에는 아마도 칩사이드의 대체 불가능한 효용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처럼 런던의 특정한 거리가 극의 중심으로 소환된 데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이 극이 칩사이드를 재현해내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런던의 대표적인 시장 거리인 칩사이드에서 여성이 거래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근대초기 여성 범주들과 가부장적 전제들이 전도

<sup>1</sup> 올위트(Allwit)의 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딸의 세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모들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집안이 다 칩사이드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되고 전복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칩사이드와 남성 가장들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칩사이드의 역사적 부침이 극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런던을 둘러싼 당대의 다양한 태도들이 극 중 칩사이드에 대한 재현에서 축약적으로 드러나고, 미들턴을 비롯한 도시희극 작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드러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칩사이드는 중세시대부터 런던을 대표해온 거리였다. 성 바오로 성당에서 시작해서 폴트리(Poultry)에서 끝나는 칩사이드 지역은 런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템즈강을 바로 뒤에 끼고 있어 접근성도 좋아 상업적, 정치적,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런던을 대표하는 지역이었다. 웨일즈에서 상경한 월터(Walter)의<sup>2</sup> 일성처럼 칩사이드는 “런던 시의 심장”(the heart of the city of London, 1.1.101)이었고,<sup>3</sup> 런던을 넘어 영국 전체에서도 “나라의 별이자 보석”(the starr and jewell of the land)으로<sup>4</sup> 인정받는 지역이었다. 칩사이드가 당대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데에는 이곳이 런던의 주요 상업지구라는 점뿐 아니라 정치·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런던의 중심지라는 것도 작용했다. 왕실의 각종 행진과 행사가 반드시 칩사이드를 거쳤으며 이는 런던의 여러 행사나 기념행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즉위가 선포되고 각종 칙령이 발표된 곳도 칩사이드였고 역으로 반란이나 반역의 선언도 이곳에서 일어났다. 정치범이나 반역자, 종교적 이단들도 런던 시민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구경거리로 제공되기 위해 이곳에서 처형되거나 처벌되었고, 런던 시장 취임 기념행진이나 각종 오락거리 역시 칩사이드를 반드시 거쳐 갔다. 이는 무엇보다도 칩사이드가 런던의 어느 거리보다 넓고 탁 트였기 때문이었으니 런던 거리들이 불과 몇 피트 너비에 불과했던 시기에 칩사이드는 400야드 길이와 50피트 이상의 넓이로 런던 성곽 안에서 가장 길고 넓은 거리였다. 그러면서도 그냥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리 양쪽 끝에 두 개의 수도(the Little Conduit/the Great Conduit)가 있어 공간이 양쪽으로 막힌 느낌이 있어 각종 행사를 치르기 좋았다는 것이다(Harding 78).

<sup>2</sup> Walter는 “워터”라고 발음되어 이 극에 여러 번 나오는 “water”와 동음이의어(pun)를 이루었을 것이나 여기서는 그냥 월터로 음역하기로 한다.

<sup>3</sup> 텍스트 인용은 Thomas Middleton, *Thomas Middleton: The Collected Works*에서 인용하고, 이후는 막, 장, 행만 표시하기로 한다.

<sup>4</sup> 『승리의 찬가』(Paean Triumphall 1604)의 일부로 Karen Newman, “Goldsmith’s Ware”: Equivalence in *A Chaste Maid in Cheapside* 104에서 재인용했다.

특히 칩사이드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거리는 금세공사들이 모여 있는 골드스미스 로우(Goldsmiths' Row)였다. 스토우(John Stow)의 유명한 묘사를 보자.

다음으로 봐야 할 곳은 런던 성벽 안은 물론이고 영국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뼈대를 가진 멋진 집과 가게들이니, 흔히 골드스미스 로우라고 불리는 거리이다. 이곳은 브레드 스트리트와 칩의 십자가 사이에 있고 브레드 스트리트 워드 안에 있다. 이 거리는 1491년 런던의 주(州)장관 중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우드가 지은 것이다. 이곳에는 열 채의 아름다운 살림집들이 있고 열네 채의 가게들이 있는데, 모두가 같은 골조 모양으로 지어졌고 4층 건물들로 똑같은 외양을 갖고 있다. 이 건물들은 금세공사의 문장(紋章)과 나무꾼 형상으로 치장하고 거리를 향해 아름답게 서있다.

Next to be noted, the most beautiful frame of fair houses and shops that be within the Walls of London, or elsewhere in England, commonly called Goldsmiths' Row, betwixt Bread street end and the Crosse in Cheape, but is within this Bread street ward; the same was built by Thomas Wood, goldsmith, one of the sheriffs of London, in the year 1491. It containeth in number ten fair dwelling houses, and fourteen shops, all in one frame, uniformly built four stories high, beautified towards the street with the Goldsmiths' arms and the likeness of woodmen. (129)

스토우가 묘사한 골드스미스 로우는 16세기 중반 이 거리의 전성기 시절 모습으로, 이 시기의 골드스미스 로우는 금세공사들이 거리를 독점하고 그들의 값비싼 귀금속들이 세련되고 화려하게 진열대를 메우고 있으며 거리의 모든 건물들이 똑같은 외관을 유지하여 통제된 통일성을 자랑했다. 골드스미스 로우는 스토우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런던 성곽 안은 물론이고 영국의 그 어디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한 곳으로 런던의 사치와 유행을 선도했으며 런던의 경제적 성장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대표 거리였다. 특히 “같은 골조 모양으로 똑같은 외양”을 가진 점이 칭찬받고 있는데 이처럼 당시에는 건물의 외관이 내면에 영향을 주거나 내면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여 건물들 간의 통일성과 획일성을 강조하고 강요되었다(Griffiths 183). 이렇게 보자면 스토우의 묘사에 나타난 골드스미스 로우의 획일

적이고도 화려한 모습은 런던을 넘어 영국의 권위와 위신,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따라서 골드스미스 로우의 화려함과 통일성을 잘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런던 시와 영국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는 유용한 정책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가 초연된 1613년의 칩사이드는 이미 전성기의 명성을 잃고 있었다. 칩사이드의 전성기는 엘리자베스 여왕 후기인 1594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인 직후였고 이 시기의 골드스미스 로우는 스투우의 묘사 그대로 금세공사 동직조합(Goldsmiths' Company) 소속의 금세공사들이 거리를 독점하여 획일적인 통일감을 자랑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후 골드스미스 로우에는 흠친 장물들을 내다 파는 잡상인에, 귀금속 이외의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미천한”(meaner) 장사꾼들까지 섞여들면서 예전의 통일성과 화려함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망명한 위그노(Huguenot) 금세공사들이 런던 성곽 밖에서 귀금속을 값싸게 팔아 고객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골드스미스 로우 안의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금세공사들이 골드스미스 로우를 벗어나 웨스트 앤드(West End) 쪽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골드스미스 로우의 쇠락을 가속시키는 형국이 되었다(Newman 105). 골드스미스 로우가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골드스미스 로우의 쇠락은 런던 시와 왕실에서 많은 근심을 일으켰고, 영국의 자랑이자 런던의 심장인 골드스미스 로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종 요구가 빗발쳤는데 가장 큰 압력은 왕실에서 왔다. 특히 골드스미스 로우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골드스미스의 예전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런던 시 당국과 금세공사 동직조합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멀리 간”(remote) 금세공사들을 골드스미스 로우로 도로 불러들이라는 것이었다. 칩사이드를 떠난 이들 “멀리 간” 금세공사들을 다시 칩사이드로 귀환시키려는 노력과 그로 인해 벌어진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은 청교도 혁명 직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왕실과 런던 시, 금세공사 동직조합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이는 왕과 의회 간의 갈등 원인 중 하나로 비화되게 된다. 하지만 각종 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골드스미스 로우를 떠난 금세공사들은 다시 귀환하지 않았고 이들은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런던의 서쪽인 웨스트 앤드 지역을 칩사이드를 대체할 사치와 유행의 선도지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된다(Griffiths 176-80). 이처럼 런던을 대표하는 다른 구심점들이 개발되고 이 지역들로 돈 많은 시민과 귀족들이 이주해가

면서 칩사이드는 상업적 중요성뿐 아니라 심리적·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중요성도 상실하게 되고, 게다가 런던의 공간 기준이 교통의 흐름과 통행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칩사이드가 차지했던 런던 최고의 중심지라는 명성은 점차 웨스트 앤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Harding 95).

그런데 칩사이드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부침은 런던이 대도시로 발전하고 확대되는 과정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유럽의 큰 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던 런던은 17세기에는 유럽 전체에서 파리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동인은 급격한 인구증가였다. 1520년대에 오륙 만에 불과했던 런던 인구는 1650년경에는 사십만으로 불어나서 불과 백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8배로 늘어나게 되는데(Corfield 39) 같은 기간 영국 전체의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런던으로의 인구집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런던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외지에서 이주해온 외지인들(immigrant)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17세기 초 런던 인구의 86%가 외지인이었다고 한다(Sheppard 171). 이들은 대부분 농촌이 붕괴되면서 살 길을 찾아 런던으로 몰려온 하층민들이었고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런던 시내가 턱없이 비좁았기에 어쩔 수 없이 런던 외곽의 교외가 마구잡이로 개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교외가 난개발되고 과밀화 되면서 교외는 부랑과 빈곤의 온상으로서 각종 논란과 비난의 중심이 되었고, 런던 시당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법 환경은 교외를 무질서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받게 만들었다. 이처럼 교외가 범죄와 가난, 무질서와 부도덕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교외를 어떻게 규제할지가 궁정과 런던 시 당국의 현안이 되었으며 교외를 포함한 런던 시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할지가 당대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런던을 중세시대의 봉건적인 유기적 질서가 살아있는 곳으로 보면서 그렇게 포섭되지 않는 교외지역을 런던의 타락으로 제외시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런던의 급격한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교외 지역을 그 확장의 지표로 생각하는 시각도 있었다. 전자가 런던을 올드 잉글랜드(Old England)의 전통이 남아있는 구시가지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보수적인 입장이라면 후자는 교외까지 런던에 포함시켜 런던의 성장과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구 런던 시가지의 중심인 칩사이드는 이와 같은 런던의 지리적, 개념적 변천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중세에 런던의 중심지로 영광을 누리던 칩사이드가 런

던의 새로운 중심지인 웨스트 앤드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과정은 런던이 지리적으로 확대되는 것의 한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칩사이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각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과정은 런던을 둘러싼 논쟁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동직조합들과 런던 시당국, 왕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권력과 주체들이 칩사이드를 놓고 갈등하는 칩사이드의 역사는 런던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던 당시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니 칩사이드는 그 경쟁의 장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칩사이드의 위상 변화는 런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벌여졌던 개념들 간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칩사이드로 대표되는 런던의 구 시가지가 계급과 성차가 고정된 봉건적인 질서를 상징한다면, 궁정과 법원이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지역은 구 시가지를 넘어서는 공간적·개념적 확장을 의미하고, 또한 런던 시가지 건너편의 교외지역은 무질서와 혼란을 동반한 근대초기의 사회적·계급적 융통성을 의미했다. 칩사이드의 역사적 위상 변화에는 이처럼 런던을 둘러싼 여러 변화와 혼란들이 축약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다.

런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것 외에 이 극에서 칩사이드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용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다. 칩사이드는 영국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런던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장거리였다. 본래 도시희극 장르에서 여성의 상품화는 주요 소재 중의 하나지만 그중에서도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는 여성이 거래되는 양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극이다. 따라서 이 극의 주요무대가 영국의 대표적인 시장 칩사이드라는 것은 최적의 설정이 된다. 웨스트 앤드에 주도권을 빼앗기고는 있었지만 칩사이드는 여전히 런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변화한 대표적인 시장이었으므로 여성이라는 상품의 거래와 교환양상을 보여주기엔 가장 적절한 무대인 것이다. 칩사이드의 어원은 앵글로 색슨어 ‘ceap’으로 시장이란 의미였으며 중세에는 칩(Cheap) 혹은 웨스트칩(Westcheap)이라고 불렸다((Harding 86). 칩사이드가 시장 거리라는 것은 거래되는 물품에 따라 이 거리의 골목들을 브레드 스트리트(Bread Street), 밀크 스트리트(Milk Street), 골드스미스 로우 등으로 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에는 생산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생산에 종사하는 인물이 금세공사 옐로우해머(Yellowhammer)인데 그나마 거래하는 모습만이 나올 뿐이다. 영국의 대표 시장 런던을 다룬 도시희극답게, 그리고 런던 최고의

시장 칩사이드답게, 이 극을 지배하는 활동은 거래와 소비인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여성과 성(性)이다. 이 극에서 여성이 거래되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자.

## 2. 칩사이드와 여성들

칩사이드의 여성들 중에서도 최고가 상품은 금세공사 엘로우해머의 딸, 몰(Moll)이다. 몰은 이 극의 제목을 책임지는 인물(Chaste Maid)이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극 중 비중도 작고 대사도 47행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대부분 감탄사나 한탄에 국한되어있어서 극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Woodbridge 909). 오히려 그녀의 값어치는 그녀가 대상으로 소비되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면에서라면 몰은 매우 값비싼 귀중품으로 가치가 있다. 몰은 결혼시장에서 2,000 파운드의 지참금을 지닌 상품이고 그녀의 처녀성조차 신랑감 윌터에 의해 “40 파운드 가치가 있는 근사한 처녀성”(a sweet maidenhead worth forty; 4.4.55)으로 환산되어 제시된다. 몰을 상품화하는 것은 윌터만의 현상이 아니어서 극 중 대부분의 인물들이 몰에 대해 얘기할 때는 돈이나 물건으로 환산해서 언급한다. 어머니 모들린(Maudline)에게 몰은 “금세공사의 제품”(goldsmith’s ware, 1.1.22)이고, 동생 팀(Tim)은 몰이 아파서 창백해진 것이 “금이 은[하얀 돈]으로”(Gold into white money; 5.2.17) 변하여 값어치가 떨어진 것으로 묘사한다.

몰이 시장가치가 높은 상품이란 것은 이 극의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나와 있다.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의 원제는 *A Chaste Maid in Cheapside*인데 여기서 ‘chaste’는 당시 여러 의미를 갖는 단어였다. 우선은 처녀(chaste)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남자들에게 쫓기는(chased)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으니 순결하건 쫓기던 간에 몰의 상품가치는 높아진다. 또한 “chased”에는 “쫓기다”는 뜻 외에 수레 뒤에 끌려가는 형(刑)(당시 창녀에게 주던 벌)이라는 의미까지 있으므로 제목의 의미는 더욱 풍부해진다. 중세 이래 여성의 네 가지 범주인 처녀, 아내, 과부, 창녀 중 가장 극단에 속하는 처녀와 창녀가 제목 안에서 동시에 통칭되는 역설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chaste”의 또 한 가지 의미인 “식각된 금속”(metal that is etched; Newman 107)까지 더해지면 “chaste maid” 몰은 금세공사의 세공을 거친 귀금

속 제품이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다. “chaste”가 위의 여러 의미 중 어떤 것으로 해석되건 간에 물의 시장 가치는 제목에서부터 분명해지는 셈이다.

그런 물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시장은 결혼이란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그녀를 거래하려는 장사꾼은 그녀의 부모이다. 여기서 옐로우해머의 직업이 금세공사라는 것이 의미심장한데 근대 초기 영국의 금세공사들은 전통적인 귀금속 제조와 판매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화폐 주조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며 금융업이 없던 시대에 금융소매업자(고리대금업자) 역할까지 했다. 즉 근대 초기의 금세공사들은 원래 절대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지녔던 금이라는 귀금속을 다루는 것에서, 상대적이고 교환에 의한 가치를 갖는 화폐와 금융 쪽으로 영역을 넓혀간 것이다.<sup>5</sup> 내재적인 가치로 고정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품가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상품의 시장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따르게 마련이다. 물의 부모가 물을 노심초사하며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물은 부모의 노력과 상반되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하고 싶어 한다. 터치우드 주니어(Touchwood Jr.)와 결혼하고자 도주했다가 잡혀온 물에게 어머니 모듈린은 “무모한 것”(vent'rous baggage; 4.1.301)이라고 욕설을 하는데, 여기서 “vent'rous”의 다른 파생어 “venting”에는 상품을 거래한다는 의미도 있다(Miller 85). 그렇게 보자면 모듈린의 “vent'rous baggage”에는 겁 없이 무모하다는 의미에다가 상품이 제멋대로 스스로를 거래하려했다는 의미까지 더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머니인 모듈린이 물의 도주에 대해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견 이해되기도 한다. 모듈린의 입장에서는 최상품을 팔아 정당한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상품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스스로를 싸게 내돌림으로써 상품 가치가 훼손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거래의 대상이 감히 거래의 주체가 되려한 것도 꽤심한데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물이 그토록 값나가는 물품이 된 것은 물론 그녀가 가진 2,000 파운드의 지참금 때문이지만 또한 그녀가 처녀라는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신사계

<sup>5</sup> 존슨(Ben Jonson), 채프만(George Chapman), 마스틴(John Marston)의 『동쪽으로』(Eastward Ho)에서 터치스톤(Touchstone)이 애써 부정하는 축재방식이 바로 근대초기 금세공사들이 금융업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다. 터치스톤이 그런 손쉬운 축재방식을 마다하고 런틴 시민으로서 자신이 건설하게 재산을 모았음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금세공사들이 고리대금이나 금융활동으로 재산을 일구는 일이 흔했음을 반증한다.



급이면서도 금세공사 못지않은 장삿속을 지닌 월터가 이미 농담처럼 40 파운드라는 값까지 매겨놓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초기 가부장제에서 신붓감이 처녀라는 것은 가부장제의 혈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조건이었다. 여성의 성이 가부장제에서 갖는 역설적인 힘과 위협 역시 여기에서 오는 것이니 여성의 성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제는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극의 대표 처녀 몰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장 정숙하지 못한 범주인 창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다. “chased”가 창녀의 수레형을 강력히 암시하는 가운데 몰이라는 이름 역시 당시 창녀를 통칭하는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 또한 몰은 미들턴이 2년 전인 1611년 테커와 함께 쓴 『왈패 아가씨』(*The Roaring Girl*)에 나오는 남장여성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작품에서 몰은 그 이름만으로 창녀로 의심받고, 이로 인해 알렉산더경(Sir Alexander)과 세바스찬(Sebastian) 부자간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몰이라는 이름은 안 그래도 창녀의 혐의가 짙은 이름이고 바로 그 점이 미들턴의 다른 극에서 한 번 활용된 바 있는데도 굳이 칩사이드의 대표 처녀의 이름으로 다시 붙여졌다. 몰이라는 이름이 가진 독특한 성적·사회적 함의가 이 극 속에 의도적으로 끌어당겨진 것이다. 이처럼 처녀 몰은 런던 시민인 아버지의 계급과 지참금 덕분에 칩사이드에서 가장 비싼 상품이지만 이 극의 제목과 그녀의 이름 때문에 당대의 가장 싸구려 상품인 창녀 몰과 묘하게 중첩되는 상품이다. 가장 값비싼 상품과 가장 싼 상품이 몰에게서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극은 확실한 창녀 또한 등장시킨다. 월터가 웨일즈에서 데려온 “웨일즈 여자”(Welsh woman)가 그러한데, 이름조차 없이 “웨일즈 여자”로만 나오는 그녀는 월터의 전직 정부(情婦)로서 확실하게 창녀의 범주에 들어가는 여성이다. 성적인 문란을 암시하는 빨간 머리의 그녀는 근대 초기 결혼 시장에서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상품이지만 월터의 사기행각으로 출지에 “열아홉 개의 산”(nineteen mountains; 1.1.136)의 지참금을 가진 ‘처녀’로 둔갑하면서 시장가치가 수직상승한다. 런던 시민의 딸로서 현금 지참금만을 가진 몰에 비해, 웨일즈의 젠트리 계급 여성으로 광대한 토지까지 소유한 “웨일즈 여자”는 재산과 신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더 좋은 상품이므로 수완 좋은 장사꾼인 옐로우해머가 그녀를 사들이려고 혈안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처녀인 몰이 창녀 몰과 중첩되듯이 창녀 “웨일즈 여자”는 토지를 소유한 처녀와 중첩되고 극 끝에서 팀

과 결혼까지 한다. 처녀여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으므로 처녀가 되는”(There's a thing called marriage, and that makes me honest; 5.4.111) 역설이 극의 끝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는 이처럼 처녀와 창녀라는 극단적인 범주의 두 여성이 칩사이드의 결혼 시장에서 같은 범주의 최고 상품으로 취급되는 역설을 보여준다. 극과 극의 위상과 상품가치를 가진 두 여성이 영국 최고의 시장 칩사이드에서 등가로 취급되는 가치전도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처녀이자 막대한 지참금을 가진 물은 이름과 제목에서 창녀의 그림자를 안고 있고, 반면에 창녀이자 무일푼인 “웨일즈 여자”는 극 속에서 토지를 소유한 젠트리 처녀로 둔갑하여 유통된다. 근대 초기 영국에서 둘은 경제적·계급적·성적 범주에서 명백히 차별화되는 여성들이지만 극 속에서는 같은 범주로 취급된다. 근대초기 영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들이 미들턴의 칩사이드에서는 사정없이 동질화되고 같은 값으로 매겨져서 거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칩사이드의 가치전도적인 상품 거래는 이미 결혼한 올위트 부인(Mistress Allwit)과 키스 부인(Lady Kix)의 결혼생활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올위트 부인은 올위트와의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월터의 아이를 일곱이나 낳은 여성이다. 이들 부부에게 그들만의 다른 자식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월터의 일곱 아이의 공식적인 아버지가 올위트이므로 그녀의 성적인 방종은 가부장제의 혈통을 뒤집어엎는 전복성을 지닌다. 가부장제가 아내의 정절에 의존해 그 영속성을 유지한다면 올위트 부인은 결혼을 매춘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근간을 뒤흔든 셈인데, 정작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게다가 극이 끝날 때쯤 올위트 부인이 월터를 만나기 전 이미 매춘으로 먹고살았다는 사실이 “살던 대로 살면 되지”(As we were wont to do; 5.2.159)란 단 한마디로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극이 끝난 뒤에도 그녀가 포주로 전업해 행복하게 살아 갈 것이라는 것이 암시된다. 이렇게 올위트 부인은 이미 결혼한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양상을 통하여 여성의 정절에 의존하는 가부장제를 흔들어서 놓는다. 가부장제 결혼에서 여성의 성을 남편이 독점함으로써 혈통이 유지되고 가부장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올위트 부인은 여기에서 남편의 배타적 독점권이라는 조항을 뺀 채 아무 문제없이 가부장적 결혼을 유지해나가는데도 그녀는 이것의 전복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올위트 부인에게는 결혼과 매춘이 다르지 않은

것이고 칩사이드에서는 결혼제도조차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매장이 된다.

올위트 부인의 결혼/매춘은 그녀의 “상위 계급 더블”(an upper-class double; Miller 82)인 키스 부인에게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월터가 재산상속에서 제외되어 무일푼이 되면서 올위트 부인의 비전혁적인 결혼/매춘생활이 끝나게 될 즈음, 키스 부인에게서 올위트 부인과 똑같은 결혼생활 패턴이 도돌이표로 시작된다. 마치 칩사이드에서는 이 돌림노래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어디에선가 계속 되풀이 될 것처럼 말이다. 올위트 부인이 올위트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월터의 일곱 아이들을 낳고 월터의 돈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듯이, 키스 부인은 키스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터치우드 시니어(Touchwood Sr.)의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 키스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고, 터치우드 시니어는 키스의 돈으로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갈 것이다. 결혼이 매춘의 절정이고 결정판이라는 하워드(Jean Howard)의 일갈이 더없이 맞아떨어지는 세계가 바로 칩사이드인 것이다(138). 키스 부인이 런던의 상류층이고 토지를 소유한 젠틀리기에 그녀의 매춘이 갖는 파괴력은 더 크지만, 이 극은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축제로 만들고 키스 부인의 임신은 런던에서 오랫동안 끊겼던 봉화 전통을 다시 살려낼 만큼 기쁜 일이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칩사이드의 세계 속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몰의 어머니인 모듈린도 그 이름(참회한 창녀 막달렌 마리아(Magdalene Maria)에서 온 이름)이 함의하는 것처럼 결혼 전에 방탕한 생활을 한 듯하고, 터치우드 시니어는 좋은 남편이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생아를 두고 있으며, “시골처녀”(Country Wench)는 아이의 아버지로 의심되는 여러 남자들에게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키스 부인도 결혼 전에는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옐로우해머도 여러 명의 사생아를 두고 있다. 칩사이드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정부를 두고 누구나 혼외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누구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이다. 여성이 상품화되고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것은 이 시기의 많은 작가들이 다른 소재이지만 미들턴은 이것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혼한 알리바이”(Howard 139)로 떠넘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내와 딸을 상품으로 내놓고 거래하는 남성들은 칩사이드에서 어떤 상인들일까. 이제 이 여성들을 거래한 주체인 아버지/남편과 칩사이드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 3. 칩사이드와 옐로우해머

옐로우해머는 금세공사이다. 금세공사는 도시회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 중의 하나인데 이는 도시회극이 런던의 소비와 거래 양태에 관심을 가진 장르인 것과 관계가 있다. 근대초기 영국에서 금세공사는 귀금속 제품들을 제조하는 장인일 뿐 아니라 돈을 유통시키고 불러주는 금융업까지 겸했기에 런던의 소비와 유통을 그려내기에 적합한 업종이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금세공사들은 고객들의 귀금속을 맡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줌으로써 초기 은행의 역할을 했고,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화폐제도 속에서 주화를 제작하고 감별하며 유통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지금의 국책은행 역할까지 일부 했던 셈이었다.<sup>6</sup> 옐로우해머가 극 중에 처음 등장해서 한 일 역시 귀금속을 감별하여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일인데, 금줄을 가져온 신사가 요구한 금액을 1/3로 깎아내리는 그의 모습은 귀금속 장인이라기보다는 전당포 주인, 혹은 심지어 장물아비의 분위기까지 풍긴다(Woodbridge 908). 모듈린에게 위조 주화를 속아서 받은 것 아니냐고 책망하는 것에서도 그의 주요 활동이 제조보다는 금융 유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칩사이드에서 그가 유통시키고자 하는 가장 값비싼 상품은 그의 아들과 딸이다.

옐로우해머가 속해있는 런던의 시민계급은 계급의 위아래 양쪽에서 높은 유동성을 보였다. 런던의 인구증가는 대부분 외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immigrants) 때문이어서 17세기 초에는 런던 인구의 86%가 이들 이주민들이었다(Sheppard 171). 이들 이주민들 중 극히 일부가 동직조합에 들어가 도제 생활을 거쳐 자유 신분(freedom)을 얻고 런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계급 상승이라면, 이들 런던 시민들이 토지를 사들이거나 젠트리 계급과 결혼하여 젠트리로 올라서는 것이 위로의 계급 유동성이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이 유동성이 역으로도 이루어져서 젠트리가 도제를 거쳐 런던 시민이 되기도 하고, 런던 시민이나 젠트리가 더 아래 계급으로 전락하기도 했으니, 월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계급 상승보다는 계급 하강이 더 흔한 일이었다.

런던 시민 중에서도 특히 금세공사는 신분상승을 하기에 최적화된 직종이었

<sup>6</sup> 우연히도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가 초연된 1613년은 제임스 1세가 정부의 공식적인 주화제작을 최초로 허가한 시기이기도 하다(Newman 98).

다. 직업상 상류층과 대면하거나 거래할 기회가 많은데다가 재산을 축적할 기회도 많아서 금세공사는 런던 시민의 어느 직종보다도 위 계급으로 올라간 비율이 높은 직종이었다(Jenstad 3). 옐로우해머가 그 예로써 옐로우해머 집안은 런던 시민의 계급 유동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옐로우해머는 요크셔(Yorkshire) 출신의 외지인으로 런던에 와서 지금은 칩사이드의 금세공사로 변절한 런던 시민이 되었지만 자신의 자식세대는 젠트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한 세대 내에서 세 개의 계급이 변하는 계급 유동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런던 시민과 마찬가지로 옐로우해머 역시 한편으로는 런던 시민 계급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 시민 계급을 벗어나 상승하고 싶어 하는 상호모순적인 계급관을 갖고 있다.

이는 1막 1장에서부터 드러나는데 그는 등장하자마자 아내의 단어 사용("errors")을 트집 잡으며 다음과 같이 힐난한다.

“실수”라니! 아니, 우리 런던 시로는 당신 양에 안차는 거야, 마누라?  
그래서 굳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단어를 갖다 써야하는 거냐고!

Errors! Nay, the city cannot hold you, wife,  
But you must needs fetch words from Westminster. (1.1.27-28)

“Errors”는 오심영장(writs of error)과 같은 법률용어에 자주 쓰이는 변호사들의 용어이고, 변호사들이 모여 살거나 활동하던 웨스트민스터는 왕실 궁정과 귀족들의 저택들이 자리 잡은 곳으로 칩사이드를 포함한 런던의 구시가지와 경쟁하던 신흥 부촌이었다(Archer 71). 단어 하나의 사용에서 런던의 시민계급과 웨스트민스터의 상류계급을 민감하게 편 갈라 구분하면서 옐로우해머는 칩사이드로 대표되는 런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웨스트민스터로 대표되는 귀족 계급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본래 위계질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그 계급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사람들인지라 옥스퍼드 출신으로서 런던 시민으로 입신양명한 옐로우해머는 계급을 나타내는 언어에 대해 단어 하나하나까지 극도로 민감하게 군다(Jenstad 9).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경계하고 반감을 보였던 바로 그 계급에 편입되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결혼 시장에 내놓는 이중성을 보인다. 계산속 빠른 금세공

사 옐로우해머에게 당시 가장 흔했던 중산층(돈)과 젠트리(지위) 간의 결합은 양에 차지 않는다. 터치우드 주니어(Touchwood Jr.)도 젠트리 계급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몰의 남편감이 될 수 없고, 월터처럼 돈과 계급이 함께 있는 남자만이 옐로우해머에게서 몰을 사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옐로우해머의 금세공사다운 빠른 장삿속은 아들 팀에게도 적용돼서 젠트리 계급에 토지를 갖고 있고 게다가 처녀인 “웨일즈 여자”를 사들여서 아들 팀의 신분상승과 재산증식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팀의 경우 캠브리지 대학에 보냄으로써 교육과 결혼의 양동작전으로 자식을 확실히 신분상승시키려는 노력을 보인다. 멍청한 팀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대학생인 지금도 개인 과외 선생을 붙이고 남들은 한두 권으로 쉽게 떼는 라틴 문법책을 수십 권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신분상승시키려는 옐로우해머 부부의 눈물겨운 노력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런던 시민 계급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 젠트리 계급에 편입되려는 옐로우해머의 모순된 감정은 월터에게 하는 다음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저런, 저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기사님. 아니면 저 애 얼굴이 빨개질 겁니다. 그런 말은 자유 신분을 가진 런던 시민의 딸녀에겐 너무 거창한 말이에요. “명예”라느니 “충실한 하인”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화이트홀이나 그리니치의 지체 높은 분들에게나 어울리는 칭찬이지요. 우리에게겐 꾸밈없고 소박한, 특별세 내는 시민의 단어면 충분하답니다.

Pish, stop your words, good knight—’twill make her blush else—  
Which sound too high for the daughters of the freedom.  
‘Honour’ and ‘faithful servant’! They are compliments  
For the worthies of Whitehall, or Greenwich;  
E’en plain, sufficient, subsidy words serves us, sir. (1.1.129-33)

이 대사는 극 초반 몰과 처음 대면한 월터가 자신을 “충실한 하인”이라 칭하며 궁정풍 언어로 몰에게 구애하자 옐로우해머가 이를 말리는 대목에서 나오는 대사이다. 얼핏 보면 옐로우해머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시민계급의 자부심이 묘하게 드러난다. 특히 “E’en plain, sufficient, subsidy words”가 그리한데, “plain, sufficient”는 런던 시민의 꾸밈없는 소박한

어투를 젠트리의 화려한 미사여구와 비교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바로 뒤의 “subsidy”에서 계급적인 자부심이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산층의 겸손과 시민으로서의 오만이 묘하게 섞인 말이 되었다. “subsidy”는 왕실에서 런던의 부유한 시민들에게만 부과하는 특별한 세금으로, 런던의 가난한 시민들과 부유한 시민들을 차별화하는 일종의 특권의 징표였다(Jenstad 14). 그렇다면 “plain, sufficient, subsidy words”는 앞의 두 단어에서 보이는 겸손함과 투박함이 “subsidy”의 오만한 자의식과 병렬을 이루면서 기묘한 계급적 이중성을 드러내게 된다. 한편으로는 특별세를 낼만한 경제력이 있는 시민으로써 미사여구나 일삼는 젠트리 계급에 대한 경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자식들은 그런 말을 쓰는 계급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옐로우해머의 신분상승 야망이 좌절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장사꾼의 기술을 장사꾼보다 더 잘 쓰는 젠트리 계급 월터와 터치우드 시니어 때문이다. 도시회극의 전형적인 “남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속는”(biter bit) 플롯이 옐로우해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옐로우해머는 그 자신도 능란한 장사꾼이면서 오히려 월터의 사기성 상술에 속아 시장가치가 없는 물건(“웨일즈 여자”)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자신의 비싼 물건(물)은 무일푼의 터치우드 주니어에게 대가도 못 받고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 이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 칩사이드라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앞서 칩사이드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칩사이드는 영국 최고의 시장이었지만 웨스트 앤드로 금세공사들이 이주해가면서 과거의 영광을 상당부분 잃고 있었고, 이는 런던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런던의 전통적인 중심지들이 직면했던 변화와 혼란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칩사이드의 성공한 금세공사 옐로우해머의 신분상승이 좌절된 것은 옐로우해머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칩사이드 전체로 보자면 칩사이드의 시민과 그 재산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고 칩사이드 안에 안전하게 유지한 것이 된다. 17세기 전반 내내 왕실과 금세공사 동직조합, 런던 시 간에 갈등을 일으켰던 금세공사의 유출이 적어도 이 극 안에서는 안전하게 봉쇄되고 칩사이드의 아름다움과 권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된 것이다. 이를 다시 극 중 대사를 이용해 표현하자면 도시가 옐로우해머를 “붙잡은”(hold) 것이 된다. 옐로우해머가 극 첫 장면에서 아내인 모듈린에게 했던 “도시로는 양이 안 찬”(the city cannot hold you; 1.1.27)다는 말이 옐로우해머에게 그대로 부메랑

이 되어 칩사이드의 대표 시민 옐로우해머는 이제 그 도시에 의해 “붙잡힌”(hold) 꼴이 되었고, 이는 옐로우해머뿐 아니라 그의 자식들에게도 해당되는 운명이 되었다. 옐로우해머 부부가 그토록 칩사이드에서 내보내고자 노력했던 두 자식은 십중팔구 결혼 후 칩사이드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들 팀은 캠브리지 대학까지 보내 “절반은 기사”(half a knight; 1.1.159)로 만들었지만 무능한 바보에다가 창녀와 결혼한 처지이기에 결국 졸업 후 칩사이드로 돌아올 것이고, 딸 몰은 하층 젠트리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토지도 수입도 없는 무일푼의 작은 아들이기에 이들 부부 역시 칩사이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옐로우해머의 신분상승 야망이 좌절되고 그가 딸의 결혼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가 극 끝의 축제적 분위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I will prevent you all and mock you thus, / You and your expectations; 5.4.60-61) 몰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극 끝의 축제현장에 은근슬쩍 끼어든다. 게다가 두 자식의 혼인잔치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가부장의 권위로 이 극의 마지막 대사까지 차지한다. 결국 철저한 장사꾼인 옐로우해머는 두 자식의 결혼에서 입은 손해를 손실 처리하고 칩사이드의 모범 시민이자 금세공사 동직조합원으로서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몰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자 옐로우해머 부부가 신경 쓰는 것도 몰의 생명이 아니라 이웃들의 눈이고, 딸의 결혼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딸과 아들의 결혼식 연회를 열어주는 장소도 골드스미스 홀(Goldsmiths' Hall)이다. 골드스미스 홀과 같은 동직조합 회관(Guildhall)은 그 직종의 장인정신과 자부심이 깃들인 곳이고, 따라서 한때 신분상승을 꿈꾸면서 계급적 탈출을 꿈꾸었던 옐로우해머가 굳이 금세공사 동직조합 회관에서 자식들의 결혼피로연을 열겠다는 것은 런던 시민이자 동직조합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시민으로서의 계급적 자부심을 천명하는 제스처로 이해된다. 이처럼 칩사이드는 경제적·계급적으로 칩사이드를 벗어나려는 옐로우해머를 그 경계 안에 눌러 앉힘으로써 옐로우해머 일가의 재산과 신분을 칩사이드 안에 유지하고, 유기적인 시민 공동체로 정의되는 구 런던의 대표주자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이는 칩사이드에서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상황과 다른 전개이니 극 속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이 칩사이드의 또 다른 가부장인 올위트이다.



#### 4. 칩사이드와 올위트

올위트는 이 극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시민 가부장 중 한 사람으로 칩사이드의 대표적인 시민인 모듈린 옐로우해머를 딸의 세례식에 초대할 만큼 가까운 사이기도 하다. 올위트 딸의 세례식에 청교도들을 비롯한 칩사이드의 여러 시민 부인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보아 올위트 일가는 칩사이드의 점잖은 시민으로 행세하며 살아온 듯하고 이 가족이 정작 무엇을 팔아서 먹고 사는지 아는 사람은 월터 일행과 올위트의 하인들뿐이다. 그러나 앞서 올위트 부인에서 보았듯이 올위트 부부는 결혼과 매춘의 일체화를 실현한 사람들로써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부장제의 근간을 내파하는 전복성을 지닌 인물들이다. 올위트의 유명한 대사를 보자.

난 그에게 감사해. 그자는 지난 십년 동안 내 집을 먹여 살렸지.  
 내 아내를 건사해줬을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전체를 부양했어. 난 그의 밥상에 앉지.  
 그자는 내 아이들 전부를 낳아주고  
 매월, 매주, 유모에게 급여를 주지.  
 난 한 푼도 안내. 집세도, 교회 헌금도, 심지어 청소비까지 말이야.  
 이거야말로 남자가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제일 행복한 경지잖아!

I thank him, h'as maintained my house this ten years,  
 Not only keeps my wife, but a keeps me  
 And all my family. I am at his table;  
 He gets me all my children, and pays the nurse  
 Monthly, or weekly; puts me to nothing,  
 Rent, nor church duties, not so much as the scavenger:  
 The happiest state that ever man was born to! (1.2.16-22)

이 대사에서 가부장제의 모든 금과옥조들은 간단히 무너진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혈통의 적법성도, 가장의 가족 부양 의무도, 아내에 대한 성적인 독점권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것도 이런 원칙들에 대해 정면으로 저항하거나 반항하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무시하고 마치 애초에 없는 규범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이 생활이

아말로 “남자가 누릴 수 있는 제일 행복한 경지”라는 올위트의 주장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원칙들은 간단히 뒤집혀버리는 것이다. 옐로우해머 같은 런던 시민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시민으로서의 계급적 자부심이나 자식을 통한 계급상승 욕구도 올위트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남의 일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십년 동안 혼외관계를 유지한 월터나 그 사실을 다 알고도 월터를 수치맞는 사윗감으로 생각하는 옐로우해머의 형편없는 도덕관조차 올위트의 무도덕적인 이해 타산 앞에서는 순진한 아마추어로 보일 지경이다. 올위트 역시 옐로우해머처럼 한 가정의 가부장이지만 그는 옐로우해머의 가부장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 그 역시 런던 시민이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중산층의 자부심도 없고 애써 신분상승하겠다는 욕구도 없다. 그렇게 그는 의식적인 전복성 없이 그저 무관심하게 자기의 이익에만 충실할 뿐이지만 그가 그렇게 태연하게 아내의 성을 팔고 그 대가로 편안히 먹고사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민계급의 결혼시장의 상품논리를 드러내면서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보인다. 앞서 올위트 부인과 키스 부인에서 보았듯이 결혼과 매춘이 그다지 다르지 않은 두 집안은 가부장적 결혼 생활 역시 성매매 시장에 다름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칩사이드의 은밀한 침실이 실은 장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올위트가 이 극에서 허무는 것은 가부장적 결혼만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결혼생활을 매춘으로 바꿈으로써 가부장적 결혼을 힘들이지 않고 내파했다면, 극 끝에 가산을 정리하고 웨스트 앤드로 떠나는 것은 칩사이드가 애써 이론 경제적·계급적 봉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옐로우해머 집안의 신분상승 욕구가 좌절됨으로써 금세공사 옐로우해머의 기술과 재산이 칩사이드 안에 봉쇄되고 이것이 런던을 구시가지에 국한시켜 정의하고자 하는 보수적 태도의 힘든 승리로 읽힐 수 있다면, 올위트가 웨스트 앤드로 이주해 고급 유곽을 여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 벌어진 칩사이드의 영락과 연관 지어진다. 웨스트 앤드는 이 극이 쓰여진 시기에는 이미 칩사이드를 대체할만한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다(Griffiths 191). 앞에서 보았듯이 중세 이후 전통적으로 런던의 상업적·정치적·경제적 중심은 칩사이드였지만 그 영향력은 16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줄어들었고 이 극이 초연되던 1613년에는 이미 칩사이드의 쇠락과 혼란이 금세공사 동직조합은 물론 런던 시 당국과 왕실의 근심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칩사이드의 대표 거리인 골드스미스 로우의 재개발과 개혁이 왕실과 런던 시 당국, 금세공사 동직조합

간에 어떤 갈등과 알력을 낳았는지는 이미 살펴보았거니와 골드스미스 로우를 새롭게 대체한 웨스트 앤드 지역은 고급주택가가 밀집하고 구매력을 갖춘 상류계층이 몰려 살면서 런던의 돈과 유행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Stock and Zwierlein 7). 이런 상황에서 월터 덕분에 칩사이드의 혜택을 실컷 맛본 올위트가 이제 칩사이드의 집을 세주고 그 대신 웨스트 앤드인 스트랜드 (the Strand)에서 고급 유곽을 열겠다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 칩사이드에서 웨스트 앤드로 옮겨갔던 돈과 유행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며 또한 구시가지에 기초한 전통적인 런던 개념의 무용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다. 칩사이드의 금세공사 옐로우해머는 웨스트 앤드로 옮겨간 술한 다른 금세공사들과 달리 칩사이드에 남았고 그림으로써 칩사이드가 런던의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런던 개념을 애써 입증했지만, 올위트는 시류를 쫓아 웨스트 앤드로 옮겨감으로써 칩사이드가 한물간 상업중심지임을 드러내고 새로운 런던 개념이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왕과 런던 시 당국의 술한 경고와 회유에도 자신의 경제권을 내세워 칩사이드로 돌아오지 않았던 “멀리 간” 금세공사들처럼 올위트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시 했고 이 과정에서 옐로우해머처럼 칩사이드를 지킨 금세공사들은 경제적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물론 이 극은 옐로우해머의 골드스미스 홀 만한 약속으로 끝나고 칩사이드의 영광과 특권이 다시 주장된 것에서 막이 내린다. 칩사이드의 권위와 전통적인 런던 개념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 뒤에는 유유히 칩사이드를 빠져나가 웨스트 앤드로 향하는 올위트 일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고 이는 실제 현실 속에서 확인된 칩사이드의 운명이기도 하다. 활기차고 복거거리는 극 중 칩사이드의 바깥에 어른거리는 현실 속의 위협이 올위트를 통해 암시되고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 5. 칩사이드와 미들턴

이처럼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는 칩사이드에서 여성이 거래되는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옐로우해머와 올위트 두 가부장이 칩사이드와 맺는 관계를 통해 칩사이드에 대한 당대의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극에는 칩사이드에 대한 태도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극장이 있는 템즈 강 건너편에서 칩사이드

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극이 초연된 스완극장(the Swan)은 템즈강 건너편 서덕 지역(Southwark)에 있었다. 서덕이 위치한 런던의 교외지역은 런던 인구가 급증하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든 곳이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난개발과 과밀화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서덕을 비롯한 런던 교외의 무질서와 빈곤은 당시 런던 시민은 물론이고 왕실의 근심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니(Beier 127) 런던 교외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런던을 보는 전통적 시각에서는 “약탈적”(predatory; Paster 3)인 지역으로 런던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는 땅이었다. 보수적인 존 스토우가 『런던 둘러보기』(*A Survey of London*)에서 교외에 대해 서술한 분량이 런던 시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부터가 교외에 대한 전통적 시각의 불편함을 역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런던 교외는 새로운 활기의 땅이기도 했다. 런던 교외는 구시가지의 봉건적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와 혼란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활기의 장소였다. 교외를 규정짓는 당대의 양가적인 태도는 런던 교외의 대표적인 시설인 극장에서도 그대로 경주되어서 극장은 런던 시민의 근심과 통제의 대상이면서 또한 런던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는 유용한 곳이기도 했다. 극장의 관객 역시 다양해서 보수적인 런던 시민들과 교외의 하류층들이 함께 객석에 앉아있었으니 상업적인 영리기관이었던 극장이 런던이나 런던 시민들을 무대에 올릴 때에도 이 양가적인 태도가 견지될 수밖에 없었다. 극장이 자신들의 고객이기도 한 런던 시민들을 극 속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만 놓아서는 상업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했던 것이다. 따라서 런던과 런던 시민들은 극 속 풍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희극적인 즐거움을 제공해야하는 고객이었고, 런던 시민들에 대한 풍자와 찬사 간의 교묘한 협상이 런던 도시희극의 요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Stock and Zwierlein 9). 미들턴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이 한편으로는 런던 시 당국의 통제를 받는 드라마 작가이면서 동시에 런던 시민들이 고용한 런던 찬양극(civic pageant) 작가기도 했다는 사실 역시 런던 교외와 극장이 갖는 양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서덕에서 공연된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 속에 재현된 칩사이드 역시 이와 같은 양가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다. 옐로우해머의 칩사이드가 폴드스미스로우의 전성기를 재현해냄으로써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과 획일적인 통일성이 살아있는 곳으로 런던을 규정짓는 전통적인 개념을 보여준다면 올위트의 칩사이드는 계급적·공간적 유동성이 지배하는 또 다른 런던 개념을 보여준다. 반면에 미

들턴의 칩사이드는 이들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서덕에서 바라본 극작가의 칩사이드이다. 한편으로는 옐로우해머의 봉쇄된 질서를 인증하는 칩사이드가 있고 다른 한편 올위트의 전복성에 속수무책인 칩사이드가 있지만 미들턴의 칩사이드는 이들 다양한 칩사이드들이 서로 공존하며 경쟁하고 타협하는 공간이다. 이 극에는 올드 잉글랜드의 공동체적인 런던을 칩사이드같은 구시가지에 제한하려는 태도와 함께, 웨스트 앤드로 확장되는 런던의 성장과 발전을 인증하는 태도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한다. 옐로우해머의 계급적 봉쇄를 인증하지만 또한 올위트의 무지막지한 유동성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미들턴의 열린 태도는 칩사이드 안에서 벌어지는 거래와 장사에 대해서도 경주된다. 근대 초기 결혼시장과 결혼제도에서 여성이 거래되는 양상이 극 중 칩사이드의 결혼제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풍자되었지만 여기에 날선 비판의 칼날은 없다. 풍자는 있되 교훈은 없고, 도덕적 중심이 없기에 거기에 기댄 도덕적 비난도 없다. 처녀와 창녀가 구분되지 않고, 정숙한 아내와 매춘하는 아내 역시 차별화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을 팔고 남편은 아내의 빼기가 되며 아내는 매춘부가 되고 아들은 창녀와 결혼하지만 이 전도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의 성이 적나라하게 거래되지만 여성에게 책임이 손쉽게 전가되지 않고, 가부장제가 통렬하게 조롱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가부장이 축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가 월터인데 월터의 가장 큰 죄는 “감히 자신의 죄 많은 삶의 방식을 참회”(Woodbridge 139)함으로써 이 극의 전도된 축제 분위기에 불협화음을 일으킨 죄이고 그래서 월터만이 유일하게 극 끝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감옥에 간한다.

미들턴은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가 초연된 같은 해에 런던 시당국의 주문으로 자신의 첫 런던 찬양극 『진실의 승리』(*The Triumph of Truth*)를 집필한다. 미들턴이나 존슨 같은 작가들이 도시희극 장르와 런던 찬양극 장르를 둘 다 쓸 경우 런던의 부정적인 현실은 도시희극으로, 이상화된 모습은 찬양극으로 차별화해서 썼다는 의견도 있지만(Paster 151) 적어도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에는 이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가 일방적인 런던 찬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극에 재현된 런던이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라고만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칩사이드가 극의 전면에 등장하여 탐색되고 재현되는 양상을 보면 작가 미들턴이 런던의 대표 거리 칩사이드를 이 극의 주요 등장인

물 중 하나로 만듦으로써 런던에 찬사를 바친 것이라는 뉴먼(Karen Newman)의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112).

미들턴은 동시대 극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런던에 집중하여 집필했던 작가이다. 런던 태생인데다 아버지도 동직조합원이었고 본인도 그러했으며 옥스퍼드를 다닌 몇 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런던을 떠나 산 적이 없고 대부분의 작품이 런던을 배경으로 했다. 그가 마침내 1620년 런던의 공식적인 ‘연대기 작가’(Chronologer)로 임명된 것도 런던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과 노고가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는 이처럼 가장 대표적인 런던 작가가 마지막으로 집필한 도시희극이고 이후 그의 주력장르는 비극과 런던 찬양극으로 바뀌게 된다. 그의 마지막 도시희극에서 미들턴이 이미 영락해가는 칩사이드를 소환해낸 것은 런던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을 작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 역사 속의 칩사이드는 런던의 성장 과정에서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미들턴의 칩사이드는 여전히 런던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또한 런던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서로 경쟁하며 타협하는 장으로서, 이 극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로 자리매김한다.

주제어 | 토마스 미들턴, 『칩사이드의 정숙한 처녀』, 칩사이드, 골드스미스 로우, 런던에 대한 개념들, 여성의 상품화, 계급 유동성

## 인용문헌

- Archer, Ian. "London and Westminster." *A Companion to Renaissance Drama*. Ed. Arthur F. Kinney. Oxford: Blackwell, 2002. 68-82.
- Beier, A. L. "Social Problems in Elizabethan London." *The Tudor and Stuart Towns: A Reader in English Urban History, 1530-1688*. Ed. Jonathan Barry. London: Longman, 1990. 121-165.
- Corfield, Penelope. "Urban Development in England and Wales in the Sixteenth

- and the Seventeenth Centuries." *The Tudor and Stuart Town: A Reader in English Urban History, 1530-1688*. Ed. Jonathan Barry. London: Longman, 1990. 63-120.
- Frassinelli, Pier Paolo. "Realism, Desire and Reification: Thomas Middleton's *A Chaste Maid in Cheapside*." *Early Modern Literary Studies* 8.3 (2003): 5.1-26.
- Griffiths, Paul. "Politics Made Visible: Order, Residence and Uniformity in Cheapside, 1600-45." *Londinopolis: Essays in the Cultural and Social History of Early Modern London*. Ed. Paul Griffiths and Mark S. R. Jenner. Manchester: Manchester UP, 2000. 176-96.
- Harding, Vanessa. "Cheapside: Commerce and Commemoration."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71.1 (2008): 77-96.
- Howard, Jean. *Theater of a City: The Places of London Comedy, 1598-1642*.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7.
- Jenstad, Janelle Day. "'The City Cannot Hold You': Social Conversion in the Goldsmith's Shop." *Early Modern Literary Studies* 8.2 (2002): 5.1-26.
- Middleton, Thomas. *A Chaste Maid in Cheapside. Thomas Middleton: The Collected Works*. Ed. Gary Taylor and John Lavagnino. Oxford: Oxford UP, 2007. 907-54.
- Miller, Shannon. "Consuming Mothers/Consuming Merchants: The Carnavalesque Economy of Jacobean City Comedy." *Modern Language Studies* 26 (1996): 73-97.
- Newman, Karen. "'Goldsmith's Ware': Equivalence in *A Chaste Maid in Cheapside*." *Huntington Library Quarterly* 71.1 (2008): 97-113.
- Paster, Gail Kern. *The Idea of the City in the Age of Shakespeare*. Georgia: U of Georgia P, 1985.
- Sheppard, Francis. *London: A History*. Oxford: Oxford UP, 1998.
- Stock, Angela and Anne-Julia Zwierlein. "Introduction: 'Our Scene is London...'" *Plotting Early Modern London: New Essays on Jacobean City Comedy*. Ed. Dieter Mehl, Angela Stock, and Anne-Julia Zwierlein. Hampshire: Ashgate, 2004. 1-20.
- Stow, John. *A Survey of London*. 1598. London: Chatto & Windus, 1876.
- Woodbridge, Linda. Introduction. *A Chaste Maid in Cheapside. Thomas Middleton: The Collected Works*. Ed. Gary Taylor and John Lavagnino. Oxford: Oxford UP, 2007. 907-11.

## ABSTRACT

**Cheapside in *A Chaste Maid in Cheapside*****Mi Young Le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way Cheapside is represented in Thomas Middleton's *A Chaste Maid in Cheapside*, thereby showing various contemporary attitudes to London and explaining Cheapside's usefulness in depicting early modern traffic of women in London. To some contemporary minds, London was the organic community based on feudal hierarchies, while to others London was the predator expanding ruthlessly, accompanied by disorder and confusion, and yet to some others London was even the new Rome which was to become the greatest city on earth. These contradictory concepts of London compete and negotiate in the world of Cheapside, making Cheapside the central site of contention. Historically, Cheapside was the most privileged and prosperous market in medieval times, and Goldsmiths' Row, its central street, was the pride of England as well as of London. However, the beauty and hegemony of Cheapside declined with the rise of the West End. This historical trend is represented and contained through Yellowhammer's failure of upward mobility, while Allwit's sneaky exit to the Strand shows the futility of the containment. If Cheapside seen through these two dubious London patriarchs is the object of ridicule and satire, Cheapside of Middleton in the Swan Theater is the world of comical topsy-turvy festivity as well. The ambiguity and ambivalence shown in the representation of Cheapside are also detected in the way traffic of women is portrayed in this play. In the ambivalent world of Cheapside, a virgin and a whore are not distinguishable, nor are a chaste wife and an adulterous wife differentiated. In the marriage market of Cheapside, marriage is almost synonymous with prostitution, and thus every basic assumption of patriarchy collapses. This perverted transaction of women is ruthlessly satirized in the play, but without any moralizing or severe punishment. Just as various attitudes to London compete and negotiate with one another in the ambivalent world of Cheapside, traffic of women is also depicted ambivalently and amorally in this "heart of London," making Middleton's last city comedy his most endearing tribute to London.



**Key Words** | Thomas Middleton, *A Chaste Maid in Cheapside*, Cheapside, attitudes to London, traffic of women, Goldsmiths' Row, social mobility